

“모교의 풍부한 건축적 자산과 아름다운 캠퍼스 담아낼 것”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 - 프롤로그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모교는 올해 안암동 시대 80주년, 내년엔 개교 110주년을 맞는다. 한국 最高이자 最古의 사학인 모교 교정 곳곳에는 민족의 정성과 고대 구성원들의 애정이 담긴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다. 이번호부터 본보는 모교 건축물의 역사와 미학을 재조명하는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마침 필자인 김현섭 교수는 오는 6월말 고대출판부에서 모교 건축의 역사를 담은 《고려대학교의 건축》 출간을 앞두고 있다. 건축역사 전문가인 김 교우의 연재를 통해 교우들 마음속에 모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

고대 교우들만큼 자신의 모교에 애착을 가진 이들이 어디 또 있으랴? 흔히들 사용하는 동창(同窓)이나 동문(同門)이라는 말 대신 '교우(校友)'라는 한층 정겨운 용어를 고집하는 데에서도 고대인들의 끈끈한 정이 묻어난다.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가 되었든 모교 캠퍼스는 세파에 지친 모든 교우들이 언제든 달려와 안기고픈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 어느 학과들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고려대학교처럼 빼어난 건축적 경관을 가진 학교가 없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면 더욱 그러할 터이다.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본관(285호)과 구 중앙도서관(286호), 그리고 서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고풍스런 석탑의 장려함은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본관 뒤편의 계단을 오를 때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중세풍 건물의 위용 역시 많은 이들을 매료하고도 남았을 법하다. (필자는 이것이 인촌기념관이라는 사실과 이 건물이 생각과 달리 '아쉽게도' 비교적 근래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암울했던 시절 가운데에서도 일본인이든 서양인이든 방문객이 있으면 기필코 안암의 석탑 앞으로 데려와 자랑했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의 풍부한 건축적 자산과 아름다운 캠퍼스 까닭에, 필자가 모교에 돌아와 건축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그리운 마음의 고향

그런데 대학 캠퍼스라는 것이 (건축과 도시 일반이 그러하듯)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않는다. 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도 있는가 하면, 새로이 세워진 건물이나 사라진 건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일부의 모습을 탈바꿈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졸업 후 한참 만에 학교를 방문하고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교우들도 많은데 (실은 각 각이 경험한 캠퍼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새 단장한 캠퍼스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사라진 추억의 장소에 대한 그리움도 배어 있으려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려대학교의 건축에 대한 역사적 정리는 시도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도가 유효한 대학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나, 해외의 유수한 대학들은 캠퍼스의 건축안내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건축역사를 전공하는 필자가 모교의 건축사적 흐름을 개괄해 보고픈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학교에 임용되던 2008년부터 틈틈이 자료를 모았고, 또 학교의 도움을 받기도 하여, 《고려대학교의 건축》이라는 책을 서술하게 되었고, 이는 곧 고려대학교출판부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때마침 교우회보로부터 학교의 건축물에 대한 연재를 부탁받게 되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제법 무르익긴 했나보다. 내년이면 벌써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지나 11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이니 학교의 물리적 역사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다 하겠고, 오는 9월이면 본관이 완공된 지 80돌에 접어들니, 지난 세월의 건축적 궤적을 추적함에 적절한 구실도 마련된 셈이다.

고려대학교 건축역사 5단계

한 세기가 넘는 고려대학교 건축의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전술한 《고려대학교의 건축》에도 차용되었고, 이 연재물을 위한 기본 열거로도 도입될 것이다. 이를 약속해보자.

첫째 시기는 1905년 보성전문학교의 설립부터 1934년 안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이때의 보성전문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몇몇 한옥과 양옥 건물들을 전전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건축적 환경 가운데 처해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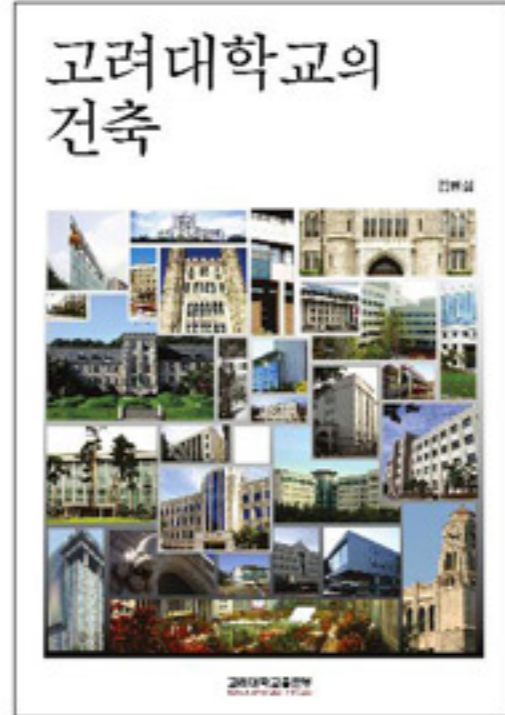


1991년 개관한 인촌기념관은 비교적 근래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고풍스러운 감각을 갖게 한다. 1934년 안암동 시대를 연 본관을 중심으로 석조고딕 양식은 모교의 건축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다. 안암동 이전의 시기를 경험한 선배 교우들 가운데 아직 생존해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터인데, 당시의 경험이 기억 저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둘째는 안암동 시대가 개막하고 본관-구 중앙도서관-서관으로 고대 석탑의 '삼부구성'이 완성된 시기(1934~60)로서, 석조고딕의 모티브와 건축가 박동진(朴東鎭, 1899~1980)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때이다. 그야말로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건축적 정체성이 형성된 기간이다.

셋째는 캠퍼스에 근대주의(Modernism)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마스터플래닝이 처음 도입된 시기(1960~85)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축구법이 선호되었다. 이때는 1965년 고려대학교 건축과의 첫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이정덕(1933~) 교수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달 말 고대출판부에서 간행될 김현섭 교우의 《고려대학교의 건축》.

마지막 다섯째는 새천년에 들어선 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인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축 프로젝트와 여타 건물들의 신축으로 캠퍼스가 새롭게 단장된다. 특히 기존의 권위를 탈피하여 모두에게 개방된 중앙광장을 조성한 바는 대학 캠퍼스 건축에 선도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시설이 구비된 건축물들이 지금까지도 속속 들어서며 세계 고대 1000년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근현대건축사의 축소판

본 연재물은 각각의 시기들을 개괄한 후 당대를 규정할만한 건축물을 선정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필자의 주관에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겠지만, 역사서술이란 본질적으로 선택적이지 않은가. 그만큼 책임감 역시 막중함을 느낀다.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 건축사는 건축물의 역사를 넘어선 학교 전체의 역사로도 읽힐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다소 온건하긴 하나 (환연건대 석탑 시대 이후 전위적 건축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나),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역사의 축소판으로도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재를 시작하며 먼저 몇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은 필자의 서술이 주로 서울의 안암동 캠퍼스를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종캠퍼스와 서울의 정릉을 다루지 못함은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지만, 추후 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실관계의 오류에 관한 것이다. 필자가 비록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 학교 박물관이나 시설부 등의 자료와 건축계의 각종 문헌에 근거해 자료를 정리했지만, 기존 정보의 비일관

성으로 부정확한 기술이 나타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선배 교우들의 제언을 구한다. 훗날을 도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後世에, 韓國의 建築史를 編纂하는 史家가 나오면 이 時代에 이 GRANITE의 合成體를 看過치 않으리라 고 나는 壯談하고 싶은 心情이다.” 고려대학교 건축의 주춧돌을 놓았던 박동진 선생은 1955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후대의 한국건축 역사가가 본교 석탑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라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高大新聞』, 1955.5.16). 필자가 감히 그의 예견에 부응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이 연재물이 앞으로의 더 큰 건축사 서술을 향한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길 소망해 본다.